

新 年 辭



會 長 조 규 상

丙寅年의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萬福있으시기를 祝願합니다. 無窮한 歲月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人生이 一場 春夢이라면 한해나 더우기 하루는 光陰如矢이라 하겠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時刻이기에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貴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成功보다도 失敗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 失敗의 連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權力, 財物, 健康, 名譽등이 우리에게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 부딪쳐 보면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고 무궁하며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보람을 안겨주는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서로 나눌 때 빛이 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의 참 뜻과 보람은 근로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러한 뜻과 보람이 없다면 우리의 일은 모두 虛事입니다.

우리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健康診斷도 하고 作業環境도 調査하며 保健教育도 實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근로자들을 위하기 보다는 그 事業自體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아무 뜻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결과도 가져 옵니다.

우리協會도 이제 20년이 넘어 成人으로서 과거의 모든 경험을 살려 일하여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法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하고저 하는 사람의 뜻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事業場속에 있어 참된 産業保健管理事業이 싹트고 그나름대로 노력하여 結實을 가져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課題입니다.

새로이 産業安全保健法이 施行되고 地域責任制 特殊健康診斷이 試圖되고 있으며 앞으로 集團保健管理體制가 計劃되고 있는 오늘 우리協會는 社團法人으로서, 大學은 研究機關으로서 그리고 事業場 保健管理者는 事業場에서 各己 그 特殊性과 맡은 任務를 살려 보람있는 일들을 展開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會員여러분들의 健勝을 祈願하는 바입니다.

丙寅年 새해아침